

三國時代의 獸醫學

I. 三國時代 獸醫學의 概觀과 發展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畜產學教室

姜 晁 熙

I. 緒 論

1. 三國時代의 畜産의 概觀

樂浪을 몰아내고 高句麗, 百濟, 新羅는 앞서거니 뒤서거니하여 생겨나 三國鼎立의 時代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가운데서 高句麗는 鴨綠江을 사이에 두고 南北으로 各各 十里가 되는 廣大한 地域에 걸쳐있어 大國家를 건설한것으로 三國中에서 漢民族과의 접촉이 가장 먼저 되어 漢文化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게 되었던 것이다.

扶餘社會에서 그 官職에 馬, 牛, 猪, 狗等 家畜의 形容詞가 붙은 加制度는 農耕時代에 있어서도 畜産이 그들의 重要한 資本을 이루는 畜牧經濟時代의 畜群資本別(家畜別)에 의한 族長의 稱號가 그대로 階級分代에 殘存한 것인데¹⁾ 余餘와 同系統인 高句麗에 있어서도 大國家를 建設하게 된것은 農業生産의 增加와 家畜飼養으로 그들의 富를 蓄積하여 경제적으로 發展한데 있는 것이다²⁾.

魏志에 「其國善養牲」이라고 한것과 같이 高句麗에서는 新羅와 百濟에서 보다도 家畜飼育이 그들의 경제의 中心이였고 用畜의 飼育이 旺盛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百濟는 亦是 余餘系인 高句麗의 一支派에 의하여 馬韓의 故地를 統合하여 成立된 國家로서 時代에 따라 勢力과 領土에 消長이 있었으나 社會發展은 主로 下層의 노동력과 手工業의 生産力을 基調로 한 農業生産에 依하면서 이미 自己領域內에 遺存하였던 漢文化를 消化하면서 海外로 中國大陸國家의 文化輸入으로 科學과 技術을 高度로 發展시켰던 것인데, 그 制度面에서는 主로 周의 例에 따른點이 많다.

한편 新羅는 洛東江流域의 諸部族을 統合하여 半島의 東南部に 자리잡았던 關係로 南方韓族의 固有文化의 傳統을 가장 길게 保存하면서 그 國力을 培養하였던 關係로 大陸文化와 接觸하는 것이 三國中 가장 뒤늦었고 水田耕作을 中心으로 한 耕種農業이 基本産業이었으며, 百濟와 함께 牧畜에 있어서는 高句麗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勿論 産業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韓國이 主穀農業形態에서 一步도 前進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멀리 여기서 뿌리받고 있다고 할 수있다. 洪은 「新羅의 支配의 貴族群이 大規模의 牧畜을 行하였다.」³⁾하나, 이것은 軍事上 必要에 依한 養馬事業이 王室 또는 高官所有의 牧場(陟)에서 많이 行하여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나 소는 農耕의 手段으로 飼育을 장려하고 보호하였을뿐 眞正한 産業의인 面에서의 畜牧이란것은 舉論할 정도의 것이 못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初期文化는 高句麗와 百濟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本格的으로 中國의 文化와 科學을 輸入하여 그 制度에 依存하게 된것은 7世紀後半 以後의 일이다⁴⁾.

이와 같이 三國이 鼎立한 가운데 三國相互間의 鬭爭大陸(唐)과 日本등의 外寇等に 시달리면서 新羅는 드디어 奇蹟의이고 驚異의인 三國統一의 偉業을 完遂하였던 것인데 그 勢力범위는 大同江으로부터 원산단에 이르는 細腰部를 限界로한 南部地帶에 불과하였다.

2. 漢文化와 佛敎의 傳來와 獸醫學

近代를 除外한 韓國과 日本의 文化는 中國文化를 母體로하여 發達하여 온것이 엄연한 事實이다. 一面에서는 韓國의 地理, 風土 또는 民族構成上 그 固有의 文化가 古代로부터 存在하여 連綿히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文化는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는 것이어서 Mesopotamia, Egipt, Greece, Indus等과 함께 世界文明의 發祥地의 하나로 生覺되고 있는 中國은 東洋文明의 中心이며 地理民族學의으로 中國文化圈에 속하는 韓國에 文化가 流入되고 다시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와같이 韓國이 일찍이 周時代부터 中國과 接觸하면서 文化를 吸收한 것이지만 高句麗에 漢의 鐵器文明이 流入된 以來 비약적인 技術文明의 發展을 보아 百濟에 영향을 주고 新羅를 자극하였던 것이다⁵⁾.

漢文은 古代社會 어느때부터 使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北方高句麗에서는 建國以前 韓氏朝鮮時代부터 百

濟에서는 近肖古王、阿直岐王仁가, 日本에 漢學을 傳함) 新羅에서는 十七代 奈勿王 以前부터 高句麗를 通하여 流入使用되었으리라고 一般史家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技術文化의 發展 수의학의 流入 變遷과정의 究明에 앞서 이와 關係가 같은 佛敎의 傳來와 그 영향에 對하여 暫問 設되지 않을 수 없다.

他民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民族은 古來로 精神世界를 Shamanism이 支配하였고. Magic이나 Taboo의 要素로서 構成된 宗教儀式이 이 各部族의 社會生活을 支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佛敎의 傳播로 우리 民族의 精神生活은 勿論 物質文化에로 至大한 충격을 주고 醫學 내지 獸醫學分野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치게 된것을 否定하지 못한다.

三國中에서 佛敎가 가장 먼저 들어오기는 高句麗로서 小獸林王 2年(372)에. 百濟는 枕流王 元年(384)에 中國을 거쳐 들어오고, 新羅에는 訥祗王(417-458)때에 高句麗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는 하나 公認되기는 法興王 14年(527)이라고 한다.

먼저 人醫學의 輸入과정을 살펴보면 三國이 벌어지기 前부터 漢土와의 醫學의 知識의 交流가 있었고 文獻으로는 三國時代 中期以後에 이르러 輸入된 자취를 들어 내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같이 三國中에서 漢民族과의 접촉이 가장 먼저 되기는 高구려인데 醫學分野에 있어서도 漢方의 醫學을 가장먼저 흡수한것이 高句麗이다. 即 高句麗 平原王 3年(隨文帝 天壽2年, 561)에 吳人, 知聰이 內外典藥書와 明堂圖를 갖고 高句麗를거쳐 日本에 귀환한 事實을 重視하여 中國의 方書輸入의 槁矢로 삼고 있으나 日本에서도 知聰이 方書를 가지고 갔음에도 不拘하고 唐醫方이 일지않고 그後 惠日, 福因等이 直接唐에 留學하여 歸還後 韓土醫學에서 脫皮하고 唐醫學이 發展하게 된것이다⁶⁾.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서 日本이 醫學을 처음 알고 使用하게 된것은 新羅眞聖王 13年(日允恭皇3年 414)代에 金波鎭僕紀武가 日本에 가서 允恭主의 病을 治療한 데부터 始作되고, 百濟에서는 蓋國王5年(雄略 3年 459)에 日本에 귀환한 高句麗人 德來와 그後의 여러 醫家들이 건너가 德來의 五代孫인 難波藥師 惠日이 唐醫學을 直接 輸入할때까지 日本에서는 온전히 韓醫方이 術해졌으며 韓醫方은 中國 醫學에 依하여 培養되었던 것이라던 韓土에 있어서 文化전파 經路와 對照해서 生覺할때 비록 文獻의으로는 知聰이 高句麗에온 561年을 起點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現在로서 醫學史에서 糾明할 수있는 限의 記錄에 依거한 것뿐이지 實상은 知聰以前 相當히 오래전부터 文獻의으로 또는 口傳的으로 漢醫學

이 韓土에 輸入되고 韓土醫學의 相當한 發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I. 獸醫學의 輸入과 發展

中國에 있어서 伏羲, 神農, 皇帝는 且置하고 夏, 商, 殷에 이은 周의 末期에는 醫學의 發達을 보게되고 周禮에 醫學의 分科가 記載된 가운데 獸醫의 分科가 設置된 事實과 周末 또는 前漢末에 成立된 것으로 추측되는 학문이다⁷⁾, 奏穆公時의 伯藥明堂論이 連綿하게 傳한것은 中國에 있어서 獸醫學은 人醫學과 그 起原과 發達과정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외같이 翫祥이 오래된 中國獸醫學이 韓土에도 相當히 古代로부터 漢醫學과 함께 影響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想到키 어렵지 않으나 高句麗의 僧 惠慈法師가 日本에 건너가 獸醫學을 전파하였다는 以前의 狀態에 관해서는 이것을 考證할만한 文獻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韓國固有의 獸醫術의 發展과정에 관해서도 전혀 알길이 없는것은 遺憾千萬이다.

支那醫學史의 著者 陳邦彥⁸⁾은 「支那의 醫學의 進歩는 迷信, 巫術에 依하여 始作되고 다음에 巫術은 醫에 混合되고 다시 巫術은 醫學과 分立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成立과 發展의 軌를 같이한 獸醫學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일 것이다.

韓土의 獸醫學 發展과정에 있어서 文獻이 寂寥한 가운데도 日本에 獸醫學을 傳하였다는 高句麗의 惠慈以前에는 迷信과 巫術의인 獸醫術이 行하여졌고, 惠慈以後에 巫術과 獸醫學이 混合되어 使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佛敎가 韓土에 傳來한것은 前記한 바와같이 西紀 370 年代의 일이지만 中國에서는 그 傳統的 醫學에 佛敎의 流入과 더불어 印度醫術의 影響으로 隨唐醫學은 한결 다양복잡하게 되고 著名한 醫書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惠慈의 獸醫術은 中國固有의 것에 印度醫術의 影響을 받은 三國時代의 高句麗末에 들어왔다는 것이 確實하나 國內에 있어서의 發展狀況에 있어서 특히 馬産이 旺盛하던 때이므로 상당한것이 있으리라고는 추측되나, 진술한바와같이 文獻의으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反面, 日本에 가서 日本獸醫學의 기초를 닦는 것은 기구한 現象이라 하겠다.

統一新羅期에 있어서의 더욱 다른 文化의 發展과 함께 獸醫學도 상당한 進歩가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나 亦是 文獻에 考證할만한 것이 없는 것이 遺憾이다.

III 要 約

(1) 三國中 高句麗에서는 遊牧의 性格을 띤 畜産이 旺盛하였으나 新羅, 百濟에 있어서는 軍用으로서의 馬

産, 農耕用으로서의 畜牛가 飼育되었을 뿐, 耕種農業이 基本産業이었다.

(2) 三國時代의 獸醫術에 對하여서는 資料不足으로 明確히는 알 수 없으나 高句麗의 惠慈以前에는 迷信과 巫術이 治療手段으로 行하여지고 그 以後부터 巫術과 獸醫學이 混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惠慈는 韓國獸醫學의 創始者이며, 그 年代는 서기 590年代 以前이다.

IV 參考 文 獻

· 李丙燾(1959) 韓國史 古代篇 p.213 乙酉文化社

2. 洪以燮(1946) 朝鮮科學史 p.39 正音社
3. " " p.82 "
4. " " p.67 "
5. 李丙燾(1959) 韓國 史古代篇 p.568 乙酉文化社
6. 富川游(1941) 日本醫學史 p.20 東京日新書院
7. 三木榮((1941) 鮮朝學報 vol. 2722 p.68 朝鮮學會
8. 飯田武鄉註(1941) 增補正訓日本書紀通訓 vol. 4 p.2929 畝傍書房
9. 白井恒三郎(1943) 日本獸醫學史 p.10 文永堂
9. 陳邦彥(1940) 支邦獸學史 p.25 大東出版社

A Study on the Veterinary Science in the Samkuk Shidae. (Three Kingdoms)

1. The Outline and Development of the Veterinary science. in the Samkuk Shidae.

Myon Hee Kang, D. V. M., ph. D

Laboratory of Animal Science, Faculty of Agriculture, Korea University

ABSTRACT

1. Of the three Kingdoms, Koguryo is believed to have had nomadic life, so the livestock husbandry was vigour, but, in Silla and Paikche, only the horse production as military purpose and cattle production as a mean of cultivation had been improved.
2. In the three Kingdoms, the methods of superstition and Shamanism had been used as the mean of curing animals before Haeza, a saintly priest, A. D 590. and after that, shamanism and veterinary science seemed to be combined.

We believed that Haeza is to be an initiator of veterinary science in Korea.